사랑하는 부투!!! 김부투에게…

부투야 아빠는 우리 부투에게 공부를 잘해라, 혹은 세상에서 제시한 정답만 을 쫓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구나,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단다. 때로는 부투가 걷는 길이 틀린 길이라고 세상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지만, 신념을 갖고 우리 부투가 옳다고 생각하면 흔들리지 말고 헤쳐나가렴. 단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니 항상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밝은 아이로 자라렴. 이 아빠가 우리 부투에게 약속할 수 있는 건, 우리 부투가 어떤 결정을 하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줄 거란다. 부투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, 부투가 하고 싶고, 되고 싶고, 갖고 싶은 것들을 조용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빠 말이야. 대신 건강하고 밝게만 자라다오.

사랑하는 부투야, 10개월 동안 우리 부투를 돌봐주신 고마운 분이 있단다. 바로 이 아빠의 아내이자 우리 부투의 엄마란다. 이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란다. 10달 동안 우리 부투를 돌보느라 엄청 고생했으니, 살아가면서 엄마에게 잘하렴, 이 아빠가 바라는 건, 우리 부투가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, 어여쁜 딸이자, 든든한 가족으로 지내주는 것이란다.

시간이 흐르면, 아빠도 엄마도 쇠약해져 갈 거란다. 부투야 그 때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단다. 그게 세상의 이치란다. 그냥 엄마! 아빠! 수고 하셨습니다. 라는 말과 함께 옆에 있어주렴. 그때까지 우리 부투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줄 거라 이 아빠는 믿는 단다.

부투야 나중에 크면, 이 아빠랑 단둘이 여행을 가자꾸나, 넓은 세상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줄 테니, 그 안에서 큰 꿈을 꾸어보렴. 또 한가지 아빠가 해주고 싶은 말은, 때로는 자신보다는 가족을, 가족보다는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다오.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고 또 이해하는 법을 배우렴. 부투야 절대로 혼자서는 세상을 살아 갈 수 없단다.

부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해맑은 미소를 보여주렴. 그렇게 건강하고 밝게만 자라준다면 이 아빠는 더 이상 우리 부투 에게 바라는 게 없단다.

엄마와 아빠라는 이름을 갖게 해준 연후야! 사랑해!

2013년 3월 25일 AM 03:48 45 3.1kg